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성명 : 남기탁

주소 :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33-3번지

나. 소개의원 : 안익순 의원

다. 접수일자 : 2005년 11월 30일

라. 회부일자 : 2005년 11월 30일

마.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년 12월 12일) 상정, (2005년 12월 12일) 의결

2. 청원요지

- 복된교회는 30년동안 지역의 저소득층 등 소외되는 이웃을 위하여 봉사활동과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음. 현재에도 중앙공원·부천북부역 광장 1일 300명이상 무료급식, 김장 담가주기, 장학사업, 각종 구제사업(제3국인 섬김, 헌혈활동, 지역노인 경로잔치, 의료봉사, 이·미용활동 등)
- 부천지역의 신앙인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6,000여 교우의 신앙의 요람이며 역사적이고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 금번 부천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정비구역내에 복된교회부지를 공원부지로 구획함으로써 복된교회가 가지는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채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 발상은 안일한 계획임.
-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보존가치가 있는 복된교회 부지를 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지역에서 종교 부지로 존치하여야 함.

3. 취지 설명요지(취지설명 : 안익순 의원)

- 복된교회는 대지 1,000평 부지에 연건평 1,330평, 허가 건축면적 700평으로 현재 6,000명의 교우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공동체인 동시 30년 이상 역사를 지니는 교회로써 부천의 기독교인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무료급식, 무료진료, 범시민 구제활동, 장학사업등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많은 봉사와 복지사업을 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비전을 가지고 있는 복된교회를 부천시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공원부지로 계획함으로써 이는 행정의 크나큰 오류임.
- 타 지역의 종교부지는 대체부지를 마련하거나 존치하고 있는 반면 복된교회는 공원부지로 계획한다면 종교간의 불균형이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것으로써 재 검토되어야 하고 복된교회는 존치되어야 타당함.

4. 주요질의 및 답변

질 의	답 변
○ 복된교회의 존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	○ 복된교회의 건물배치가 부정형이므로 정형화를 위하여 교회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하여 존치나 대체용지 확보방법을 검토하겠음.
○ 종교부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 종교단체의 역사, 전통, 사회기여도 등 많은 문제를 비교 검토해야됨.
○ 기본계획(안)의 공원 끝부분에 교회가 존치한다면 공원 이용 시민에게도 부담을 줄수 있다고 보는데 ?	○ 교회를 존치한다면 정형화를 시키고 다른장소 이전하는 것은 사업시행시 조합측과 협의를 하여도 되고 공원이전을 재검토하는 방법도 있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예정구역을 지정하는데 개인, 단체의 건의사항을 모두 수용한다면 효율적 도시개발이 부적절할수도 있는데 ?	○ 서울의 예를 들면 종교시설은 존치나 대체용지를 확보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음.

5. 심사결과

○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 의견서 1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 의견서**

의안번호	제469호	안건명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
소개의원	안익순	의결 연월일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2005. 12. 23)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 의견**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원미동 1-5구역 내에 원미구 원미2동 133-3번지 소재 복된교회가 포함되면서 동 부지 일원 전체가 도로 및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 종교용지 계획도 없어 현재의 복된교회를 존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복된교회 부지는 부정형의 형태이며 면적은 3,100㎡이며 기본계획상 대지와 접하는 도로 8미터를 15미터에 편입되며 교회건물은 공원용지로 계획되어 있음.

따라서 복된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은 정비계획상 공원계획부지 모서리 부분이 있어 공원계획부지 면적 중 복된교회가 위치한 곳을 종교용지로 변경하여도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대체용지 확보보다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존치되도록 효율적 토지이용 및 도로의 연계성 확보와 더불어 부지를 정형화하여 종교시설 용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2005년 12월 23일

부천시의회 의장

청 원 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를 위한 청원서

복된교회는 그간 지역사회와 함께 30년 동안 동고동락 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과 복지사업을 30년 동안 펴오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은 현재도 매일 중앙공원과 부천역 광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매일평균 300여명 급식) 김장나누기, 각종 구제사업, (정례적행사: 불우 이웃돕기, 제3국인 섬김, 헌혈, 지역노인 경로잔치, 의료봉사, 이미용 봉사), 초·중고·대학교 장학사업 등 부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30년 동안 부천지역의 신앙인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6,000여 교우들의 신앙의 요람지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정비구역 원미 19. 1-5구역 (위치: 원미동 146-4번지 일원. 면적: 179.400㎡) 내에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복된교회를 「공원부지」로 구획하므로 복된교회가 가지는 지역사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안일한 계획으로 편재했으므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정비예정구역 51번인 소사상세계획 3구역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종교부지」가 있고 (소사동천주교회) (지도참조:정비예정구역 51,52번) 정비예정구역 14번 심곡 1-3구역에는 종교시설(심곡천주교회) (지도참조: 정비예정구역 14번)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 시키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교간 불균형을 이루는 구획으로서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배려인 동시 타 종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부천시의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될 것임에는 자명합니다.

그리고 원미동 1-5 정비예정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복된교회 교우들에 대한 신앙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구획이므로 금번 토지 이용 계획에서 복된교회가 종교부지로서 「존치」될 수 있도록 복된교회 교우들은 서명하여 강력히 요청하오니 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1. 21.

청원인 (대표)

명 칭 :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교회
대표 : 박기락 (인)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46-3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

청 원 소 개 의 건 서

청 원 건 명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서		
청 원 인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33-3번지	
	성 명	남 기 탁	주민등록번호
소 개 의 원	안 익 숙 이 인 장		
소개년월일	2005. 11. 30		

▶ 소 개 의 건

금번 부천시가 실시하기로 계획한 부천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복된교회로부터 『복된교회의 존치』를 위한 의견서가 접수되었기에, 이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려고 합니다.

복된교회에서 의견으로 보낸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일차적으로 복된교회의 의견이 사실과 다름이 없어, 복된교회가 현 위치에서 종교부지로 존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복된교회는 전체 대지 1,000여평 위에 (연건평 1,330평, 허가건축평 700평, 합계 2,030평), 현재 6,000여명의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인 동시에, 3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부천의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소외계층을 위하여 무료급식, 무료진료, 범시민구제, 각종 학교 장학금 지급...등의 봉사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천시의 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할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아무런 대책 하나 없이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 계획안”에 의하여 공원부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 행정의 크나큰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사동 천주교회(심곡2동 489-14번지)와, 심곡천주교회(심곡3동 340-19번지)가 정비예정 구역에서 제외 내지는 별도로 구획을 했지만, 복된교회는 여타한 방안이나 대체부지 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공원부지』로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6,000여 교우들의 신앙을 무시하는 처사인 동시에, 종교간의 불균형을 이루는 편파적인 계획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의회 또한 무능한 의회요, 좌시하는 의회로서,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 또한 면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교회가 그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